

주간 중동 건설동향

2024. 2. 23.



한-UAE 인프라협력센터

주간 중동 건설동향

- 목 차 -

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- UAE, 아부다비, 2050년까지 가스 화력 발전 중단 예정
- 이라크, 지멘스, 초대형 발전소 3기 건설 제안
- 이라크, 2030년까지 12GW 태양광 발전 목표
- 알제리, 국가 철도망 확장 계획

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- UAE, ADNOC, 슈웨이हत 사위 가스전 개발에 대한 EoI 요청
- 카타르,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착공
- 오만, 금년 중 무스카트 메트로 연구 완료 예정
- 오만, 13억 달러 규모의 알 쿠웨이크 다운타운 프로젝트 개발
- 쿠웨이트, 무틀라 연료 저장소 프로젝트 입찰 마감일 연장
- 이라크, 94km 바그다스 순환도로 설계 완료
- 이라크, 26개 외국 기업이 바그다드 메트로 EoI 제출
- 이라크, Shell 철수로 네브라스 프로젝트 축소 검토 중
- 알제리, 소나트랙, 가스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논의 중

3. 국제유가 및 환율 동향

- 국제유가 : Brent, WTI, 두바이유
- 환율 : USD, JPY, Euro

1. 주간 건설시장 및 경제 동향

□ UAE, 아부다비, 2050년까지 가스 화력 발전 중단 예정

- 아부다비의 국영 전력회사 에미레이트 수전력공사(EWEC)가 2050년까지 가스 화력 발전 중단을 목표로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
 - 단기 및 중기적으로는 가스 발전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
 - 2024년부터 2037년까지를 다루는 EWEC의 최신 미래 용량 요구사항 요약 보고서(SFCR)가 이번 주 초에 발표되었으며, 연례 SFCR은 아부다비의 미래 발전 및 담수화 용량에 대한 권고 사항을 제공
 - 아부다비 정부는 2035년까지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비중 60%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, 예측 기간 종료 시까지 전력과 물 수요가 연평균 5%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 중
- 최신 SFCR의 권고 사항은 ▲2026년 알 아즈반 태양광 독립 발전 프로젝트(IPP) 완공 후 2027년까지 1.5GW의 태양광 발전 용량 개발 ▲2026년까지 그리드 안정성 확보를 위해 1시간 저장 깊이의 400MW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▲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의 시스템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5.1GW의 화력발전 용량 필요(2027년까지 2.6GW의 저비용 OCGT, 2028년까지 2.5GW의 CCGT 용량 운영 계획) ▲2029년까지 하루 최소 38만m³ 또는 62 MIGD의 역삼투압 용량 조달 등임
 - 이 권고안과 수요 증가 예측은 현재 건설 중인 용량을 고려한 것으로 파악됨

< 출처 : MEED (2024. 2. 23.) >

□ 이라크, 지멘스, 초대형 발전소 3기 건설 제안

- 독일 지멘스가 만성적인 전력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라

크에 각 4,800MW 발전 용량의 대형 발전소 3기 개발을 제안했다고 이라크 관영 일간지 알사바가 2월 22일 보도

- 이 신문은 무하나드 알 사파르 이라크 지멘스 매니저의 말을 인용해 지멘스가 이집트에서 수행한 대규모 전력 프로젝트를 이라크에서 모방할 수 있다고 전함
- 그는 이를 통해 약 14,000MW의 전력 공급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라크가 3~5년 후 전력 자급자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
- 사파르는 이라크의 발전 용량이 약 26,000MW로 추정되며 지난 몇 년 동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공급 격차가 벌어졌다고 밝힘

< 출처 : Zawya (2024. 2. 22.) >

□ 이라크, 2030년까지 12GW 태양광 발전 목표

- 이라크가 2030년까지 12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국가투자위원회(NIC) 컨설턴트인 라힘 알-자파리가 INA에 밝힘
- 알-자파리에 따르면 동국 내각이 2030년 말까지 약 12GW를 생산하려는 계획을 승인했으며 동국은 총 7.5GW의 프로젝트 계약을 기업들과 기체결한 바 있음
- 그는 위원회가 현재 기승인된 태양광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허가를 마무리하고 있으며, 착공을 준비 중이라고 전함
- 알-자파리는 바그다드 동쪽 나흐라완 지역에서 하루 3,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이라크 최초의 폐기물 에너지화(WTE) 프로젝트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강조
- NIC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이 WTE 프로젝트는 설계, 건설, 소유 및 운영(DBOO) 방식으로 추진되며, 입찰서 제출 마감일은 2024년 3월 8일임

- 알-자파리는 전국적으로 풍력 자원 가용성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잠재적인 풍력 에너지 투자를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참언

< 출처 : Zawya (2024. 2. 21.) >

□ 알제리, 국가 철도망 확장 계획

- 알제리 아랍어 뉴스 웹사이트 Sabq Press가 올해 2,773km의 철도 노선 건설이 시작되어 동국의 국가 철도망이 대폭 확장될 예정이라고 보도
- 알제리의 국영 철도 투자 기관인 ANSERIF의 아제딘 프리디가 2월 21일 동국 국회 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전국 각 지역을 연결하기 위한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한 바에 따르면, 트렘센-시디 벨 압베스, 구엘마-티아렛, 프렌다-티아렛, 아인 엘 베이다-오움 엘 부아기, 켄셀라 노선을 포함해 4,737km 철도 노선이 건설되고 있으며, 추가로 아나바-튀니지 국경, 우에드 지안-람다네 자멜, 세티프-지젤, 바르나-세티프, 아인 엘 메잔-모스타가넴, 모하마디아-오란, 우울드 미문-셉두, 아인 테무샹-시디 벨 압베스 등 5,650km의 철도 노선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
- 향후 프로젝트에는 부 사다-음실라-가다이야, 가다이야-레가네, 타만라셋-인 살라, 인 살라-티미문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포함됨

< 출처 : Zawya (2024. 2. 22.) >

2. 주간 MEA 건설 프로젝트 동향 (발주 및 수주 정보 등)

□ UAE, ADNOC, 슈웨이햇 사위 가스전 개발에 대한 EoI 요청

-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(ADNOC)가 아부다비 연안의 울트라-사위 슈웨이햇 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하기 위해 2월 19일 EoI 요청서를 발행

- 슈웨이햇 가스전은 아부다비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, Hair Dalma, Satah, Bu Haseer, Nasr, Sarb, and Mubarraz 필드가 있는 Ghasha 광구 내에 위치
- 슈웨이햇 가스전에는 24~30%의 황화수소와 4~5%의 이산화탄소 (CO2)를 함유한 가스가 매장되어 있음
- ADNOC은 계약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슈웨이햇 가스 생산 시설을 설계, 건설, 운영 및 유지보수(DBOM) 방식으로 건설할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며, 기업들의 EoI 제출 기한은 2월 26일임
- 이 프로젝트의 주요 공사 범위는 슈웨이햇 가스전에서 1억3백만 cf/d의 가스와 19,500 b/d의 콘덴세이트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개발 및 off-plot 시설의 공급임
- ADNOC은 선정된 업체가 계약 체결 후 20개월 이내에 슈웨이햇 가스전에서 상업적 가스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- DBOM 계약의 일부로, ADNOC은 서비스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계약자로부터 시설을 구매하거나 계약자에게 6개월 이내에 유전 시설을 해체하고 현장을 프로젝트 이전 상태로 복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음
- 슈웨이햇 가스전에서 가스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은 2030년까지 가사 해상광구에서 15억 cf/d의 사위 가스를 생산한다는 전략적 목표의 일환으로 ADNOC이 착수한 세 번째 주요 프로젝트임
- ADNOC은 2021년 11월 Dalma 해상 사위 가스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두 건의 EPC 계약을 체결하고, 작년 10월에는 169억 4,000만 달러 상당의 Hail & Ghasha 해상 사위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EPC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
< 출처 : MEED (2024. 2. 21.) >

□ 카타르, 60억 달러 규모의 석유화학 프로젝트 착공

- 카타르의 에미르인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 타니가 60억 달러 규모의 라스라판 석유화학 단지의 주춧돌을 설치
 - 이 프로젝트는 QatarEnergy(QE)와 세브론 필립스 케미칼(CPChem) J/V가 개발 중으로, QE가 지분 70%를 보유하고, 나머지 30%는 세브론과 필립스 66이 50:50으로 소유하고 있는 CPChem이 보유 중
 - 라스라판 석유화학 단지는 2026년에 생산을 시작할 예정으로, 연간 210만 톤(t/y)의 에틸렌을 생산할 수 있는 중동 최대 규모의 에탄 크래커가 건설되어 카타르의 에틸렌 생산 잠재력을 70% 가까이 끌어올릴 전망
 - 이 단지에는 고밀도 폴리에틸렌(HDPE) 폴리머 제품을 총 168만 t/y 생산할 수 있는 폴리에틸렌 트레인 2기도 포함되어 카타르의 전체 석유화학 생산 능력이 82% 증가한 약 1,400만 t/y로 늘어날 전망
 - QE와 CPChem은 2023년 1월 올레핀 및 폴리에틸렌 통합 시설인 라스라판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(FID) 계약을 체결하고 이 단지를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 도시에 건설 중
- QE/CPChem은 라스라판 석유화학 단지에 대한 FID 계약 체결과 함께 프로젝트의 EPC에 대한 두 건의 주요 계약도 체결한 바 있음
 - 에틸렌 플랜트의 EPC 계약은 삼성엔지니어링/CTCI(대만) J/V가 수주
 - * 삼성엔지니어링은 노(furnace), 에탄(C2) 수소화, 수소 정제 유닛, 메인 컴프레서 3기 등 주요 에틸렌 생산 설비를 담당하고, CTCI는 유틸리티 인프라를 담당할 예정
 - 13억 달러 규모의 폴리에틸렌 플랜트 EPC 계약은 이탈리아의 Maire

Tecnimont가 수주

- * Maire Tecnimont는 관련 유틸리티 및 오프사이트 시설과 함께 각각 100만 t/y 및 68만 t/y 생산 능력을 갖춘 폴리에틸렌 유닛 2기를 포함하는 폴리에틸렌 플랜트의 EPC를 수행 예정

< 출처 : MEED (2024. 2. 21.) >

□ 오만, 금년 중 무스카트 메트로 연구 완료 예정

- 현재 진행 중인 무스카트 메트로 관련 연구가 올해 완료될 예정
 - RO 10억을 투자하여 건설될 이 메트로 노선은 총연장 55km에 42개 역이 건설될 예정
 - 지난해 오만 교통정보통신기술부(MTCIT)는 무스카트 메트로의 첫 번째 컨설팅 연구(1단계 사전 타당성조사) 입찰을 개시한 바 있으며, 동국 주택도시계획부가 Greater Muscat Development Plan에 착수함에 따라 대중교통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핵심이 될 전망
- 이 프로젝트는 증가하는 미래 인구 수용, 투자 유치, 교통수단 개발하고, 서비스 품질 향상, 인프라 강화, 환경 보호 등을 목표로 함
 - 메트로 시스템은 무스카트 내 주요 위치를 빠르게 연결하고 도로의 혼잡을 줄이며 장래 도로 확장의 필요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시민과 방문객의 친환경 이동에 도움이 될 전망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9.) >

□ 오만, 13억 달러 규모의 알 쿠웨이크 다운타운 프로젝트 개발

- 오만 주택도시계획부(MHUP)가 13억 달러를 투자해 알 쿠웨이크 다운타운 및 워터프론트 프로젝트를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

- 이 프로젝트는 무스카트 국제공항 주변 360만m²에 걸쳐 개발될 예정으로, MHUP는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회사인 CBRE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설계를 Zaha Hadid Architects에 의뢰했으며, 2024년 말 착공 예정임
- MHUP는 또한 Tawoos 그룹(오만)과 이 프로젝트 부지에 최초의 주상복합 타워를 건설하는 계약도 체결
- MHUP는 이달에 무스카트 서쪽에 위치한 술탄 하이탐 시티 프로젝트의 1단계 개발을 위해 RO 10억(26억 달러)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
- 1단계에는 2030년까지 5km²의 도심지와 19개의 계획 지구 중 6개 지구를 개발하는 것이 포함되며, 중앙 공원, 국립 여성 및 아동 보건 센터, 병원, 오만 의료 전문위원회 빌딩, 고등보건과학연구소, 오만보건대학, 첨단기술대학, 청소년 센터, 재활센터, 공립학교, 사립학교, 경찰서, 소방서, 국립 공예산업센터, 4개의 보건소 등이 들어설 예정

< 출처 : MEED (2024. 2. 21.) >

□ 쿠웨이트, 무틀라 연료 저장소 프로젝트 입찰 마감일 연장

- 쿠웨이트의 알 무틀라 지역에 계획된 연료 저장소 프로젝트의 입찰 마감일이 2024년 2월 13일에서 4월 30일로 연기됨
- 국영 다운스트림 운영사인 쿠웨이트 국영 석유회사(KNPC)는 작년 11월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 초청장을 발행했으며, 12월 17일 사전 입찰 회의가 개최됨
- 이 프로젝트의 가치는 8억 달러로 추정되며, 그 범위에는 ▲미나 알-아흐마디 및 슈아이바 정유공장에 새로운 펌핑 시설 개발 ▲미나 알-아흐마디 및 슈아이바 정유공장에서부터 국토 횡단 파이프라인 설치 ▲내수용 저장소 건설 ▲안전 시스템 설치 ▲소방 시스템 설치 ▲저장 탱크 건설 등이 포함될 전망

- 이 프로젝트는 2013년에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이후 지연되어왔으며, 2015년에 FEED가 완료됐었으나 KNPC가 설계 수정을 결정하여 re-FEED가 진행된 바 있음

< 출처 : MEED (2024. 2. 19.) >

□ 이라크, 94km 바그다스 순환도로 설계 완료

- 한 외국 회사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주변에 건설될 94km 순환도로의 설계를 완료했다고 한 정부 관리가 2월 20일 이라크 공식 통신사 INA에 밝힘
- 동국 건설주택부 대변인 나빌 사파르에 따르면 폭 100m의 이 도로가 2년여에 걸쳐 바그다드의 모든 진입로와 수도 인근의 일부 고속도로를 연결할 예정
- 이 전략적 프로젝트의 설계가 완료됨에 따라 동국은 관련 당국의 설계 승인을 거쳐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

< 출처 : Zawya (2024. 2. 20.) >

□ 이라크, 26개 외국 기업이 바그다드 메트로 EoI 제출

- 이라크 총리 공보실의 언론 성명에 따르면 독일, 이탈리아, 스페인, 중국, 인도, 카타르의 26개 기업이 바그다드 메트로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을 표명
- 2월 19일 발표된 이 성명에 따르면 모하메드 시아 알-수다니 총리가 바그다드 메트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China Railway Sixth Group 대표들을 만났으며, 동사는 바그다드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패키지의 일환으로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알-니수르 광장 개발 프로젝트를 시공 중임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9.) >

□ 이라크, Shell 철수로 네브라스 프로젝트 축소 검토 중

- 이라크는 Shell社가 네브라스 석유화학 프로젝트에서 철수함에 따라 동 프로젝트의 규모를 축소하고 다양한 지역에 소규모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동국 산업광물부 칼리드 알-나즘 장관이 지난 주말 이라크 INA와의 인터뷰에서 밝힘
- 바스라 남부 네브라스 프로젝트에서 철수하기로 한 Shell의 결정은 석유화학에서 가스로의 투자 전환을 포함한 동사의 '새로운 투자 정책'에 따른 것이며, 동사가 바스라 가스 회사의 지분 45%를 보유하고 있어 이라크에 남아있기는 할 전망
- 알-나즘 장관은 네브라스 프로젝트에 대한 몇 가지 옵션을 곧 발표할 것이라며, 동 프로젝트를 축소하고 이라크의 여러 지역에 소규모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면 유연성이 높아지고 기술적 요구 사항과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힘
- 110억 달러 규모의 네브라스 프로젝트는 연간 180만 톤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음

< 출처 : Zawya (2024. 2. 19.) >

□ 알제리, 소나트랙, 가스전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논의 중

- 알제리의 국영 석유 및 가스 회사 소나트랙이 하씨 르멜 가스전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대규모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JGC(일본), Tecnimont(이탈리아), Baker Hughes(미국)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
- 소나트랙은 기업들과의 협의 과정에서 EPC 수의계약을 통해 이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을 희망한다고 밝혔으며, 각 기업은 이 프로젝트의 예산 규모로 10억 달러에서 33억 달러까지 제시

- 이 프로젝트는 하씨 르멜 가스전의 세 번째 주요 개발 프로젝트가 될 예정으로, 이 가스전은 알제리에서 남쪽으로 55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, 남북으로 70km, 동서로 50km에 걸쳐 있음
- JGC가 2016년에 하씨 르멜 가스전의 두 번째 주요 개발 계약을 11억 달러에 수주한 바 있으며, 이는 2021년 2월 완공됨
- 러-우 전쟁으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를 대체할 에너지 수입처를 모색하면서 알제리에서 업스트림 에너지 프로젝트가 증가 중
- 이달 초 알제리는 독일에 처음으로 파이프라인 가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VGN의 자회사와 체결했다고 발표
- 작년 7월 프랑스 TotalEnergies는 소나트랙과 알제리의 가스 생산량과 프랑스에 대한 가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일련의 계약을 체결

< 출처 : MEED (2024. 2. 21.) >

3. 국제유가 및 환율동향

< 국제유가 >

구 분		유가	변 동 (전일대비)	비 고
유 가	브렌트유	82.70	+0.59	USD/bbl
	WTI	78.61	+0.90	
	두바이유	81.19	+0.17	



< 출처: OilPrice.com (2024. 2. 22.) >

< 환율 >

구 분		환율	비 고
환 율	KRW/USD	1,329.00	최종고시 매매기준율 (KRW)
	KRW/100JPY	882.94	
	KRW/EUR	1,438.24	

< 출처: KEB Hana Bank (2024. 2. 22.) >

한-UAE인프라협력센터
협력관 / 수자원개발기술사

백 인 혁



국토교통부
Ministry of Land,
Infrastructure and Transport



해외건설협회
International Contractors
Association of Korea

Flat No. 204, Airline Building, Liwa Street,
Abu Dhabi, United Arab Emirates
Tel +971-2-563-3906
Mob +971-50-675-6215
E-mail buckeyes@icak.or.kr
http://kor.icak.or.kr